

민족의 아버지, 통일의 태양

통일애국의 길에 빛나는 불멸의 자욱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은 민족 분열의 비극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경애하는 주석께서 통일애국의 길에 남긴 불멸의 자욱은 겨레의 가슴속에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주석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이 자주의 계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셨다.

8.15이후 남조선에 강점된 외세와 그에 추종한 민족반역세력의 매국배적적인 《단선단정》 조작책동으로 민족분열이 고착될 위급이 질어간때에 주석께서는 통일적민주주의정부수립을 위한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련석회의를 소집하시어 애국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그를 타개해나가도록 하시었다.

안락의 분열주의세력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영구분열의 위급이 커가던 지난 1970년대초에도 이께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어 통일의 앞길을 활히 밝혀주시었다.

그후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 어느 겨레는 너무나 환희와 감격에 휩싸였었다. 남조선의 신문, 방송들은 주석의 통일애국의 뜻이 자

자구애에 비견 공동성명의 발표를 《새 민족사의 서광》, 《자주통일의 거보》로 대서특필하였다.

경애하는 주석께서 제시하신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도 사상과 제도보다 민족을 더 중시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그의 숭고한 뜻과 드림있는 의지가 어려웠었다.

겨레의 통일열망이 높아가는 속에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로 범민족대회가 개최되고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이 결성된것은 주석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었다.

새 세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대로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범위로 확대발전되고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며 민족사상에 6.15통일시대의 자랑찬 성과들을 수놓아올수 있는것도 조국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경애하는 주석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 것이다.

언제나 일군들이 조국통일을 위해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는 주석께 잠시라도 휴식하시였으면 하는 청을 드린적이 있었다.

그때 그이께서는 통일이 된 다음 지금까지 밀린 휴식을 다하겠다고

하시며 조국통일령도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때로는 현지지도의 깊은 밤 정적을 깨는 소책소리를 들으시면서도 통일문제를 놓고 마음쓰시고 때로는 떠도는 비구름장을 보시면서도 남녘동포들생각에 잠 못 이루시던 주석이었다.

언제나 경애하는 주석의 마음속에는 남녘겨레가 있었고 조국통일이 있었다.

민족적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상과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따듯이 포섭하여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끄시는 김일성주석의 뜻을 따라 얼마나 많은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통일애국의 대하를 이루었는가.

주제 83(1994)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주석을 만나뵈은 자리에서 한 해외동포노류기자는 한때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 용납하겠는가고 말씀드렸다.

주석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 나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가슴 후련하게 대답을 주시었다.

어느해 평양에 온 남조선의 문인 환복사자 조국을 통일하자면은 민족이 단결해야 하겠는데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려는가고 의문이 실린 말

씀을 흘렸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민족적관심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복무하려는 민족자본가는 다 포섭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지난날 잘못된 길을 걷은 사람이라 해도 잘못을 뉘우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선다면 과거를 백지화하고 손잡아 이끌어주신 수령님이시었다.

수십성상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헌신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아버지주석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는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기 위한 력사적인 문건에 《김일성 1994. 7. 7.》이라는 마지막편지를 남기시었다.

이 력사적인 편지는 우리 민민에게 주시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주석의 숭고한 뜻과 통일의지가 어려웠는것으로 하여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고있다.

투철한 자주정신과 숭고한 민족애, 광복의 도량과 비범한 령도로 조국통일위업을 개척하시고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김일성주석은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6.15시대와 더불어 오늘도 길이 빛나고있다.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시며

미국이 조선전쟁에서 패한지 반세기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침략 야망은 변하지 않았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공화국의 제안을 외면하는 것도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발로이다.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의해서 땅에서는 언제 한번 평온한 때가 있었고 조선반도는 의연 만성적인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오늘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공화국이 불패의 강국, 반제자주의 보루로 존엄떨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와 현명한 령도가 있기때문이다.

항일의 격전장에서 총대의 귀중함을 신념으로 간직하시고 반미성정의 나날 최고사령부작전대에서 무비의 담력과 배짱, 명활한 령군술을 체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정도의 첫자욱을 때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50여성상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공화국인민이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할수 있는것도 백두령장의 선군의지와 신념, 담력과 배짱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반시 제국주의연합세력은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미국은 대화의 막뒤에서 남조선과 조선반도 주변해역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며 대규모의 전쟁연습소동을 끈질기게 벌였으며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성하였다. 미국의 조종밑에 제국주의연합세력은 공화국의 《조기봉기설》을 내들리면서 공화국을 군사적으로뿐만아니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획책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기 위해 사면팔방으로 봉쇄하였다.

이렇듯 긴장한 정세는 나라와 인민에게 운명의 선택을 요구했다. 자주적인민, 자주적군위병으로 살겠다는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제국주의식민지노에가 되겠는가.

이 운명의 갈림길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의 가치를 더 높이 오셨다. 다박술초소부터 오성산, 대덕산, 초도, 1211고지, 351고지를 비롯한 조국방선천리에

로 이어진 그이의 선군장정이 있어 나라의 군력은 백방으로 다져지게 되었다.

인민군대는 침략세력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대답하는 무적강군의 본래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지나온 년대들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만일 침략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외세가 또다시 이 땅에 불질한다면 우리 민족이 잃을것은 군사분계선뿐이고 얻을것은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이다.

남조선의 《자주민보》는 미국이 북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면 조선반도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 미국의 《대북군사적공격》을 막는것은 유엔도 아니고 국제사회의 반대도 아니며 오직 그것은 선군정치로 마련된 북의 군사력이 있다고 전했으며 이말씨가 차마 아베르파방송은 만일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을 도발한다면 조선인민은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침략세력을 물리치고 제2의 7.27을 맞이할것이라고 평했다.

은 겨레는 조국과 민족 운명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가 있는 한 승리의 력사는 영원히 흐를것이며 선군의 푸른 하늘밑에 함께 모여 북락을 누리갈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라는 확신에 넘쳐있다.

7.27과 더불어 빛나는 업적

감회도 새롭다. 이 땅에 전승의 환희를 안아온 력사의 7.27. 전 60년전인 1953년 7월 27일 전승의 그날을 사람들은 어제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평양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며 터져오른 그날의 축복과 오늘도 방불히 떠오르고 군중대회장을 진감했던 열광의 환희성도 지금 귀전에 울리는듯싶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강철의 령장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조국해방전쟁은 공화국에 있어서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반미대결전이었으며 가장 엄혹한 시련이었다. 창건지 불과 두해도 안되는 청소된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국주의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대결하여야 하였고 정규무력으로 자라난지 2년밖에 안되는 인민군대가 110여차례의 해외침략전쟁에서 한번도 패한적이 없다고 하는 미제침략군과 맞서 싸워야 하였다. 그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병력과 화력기재의 밀도에 이

어서 대비도 안되는 자그마한 조선이 미국과 맞서 과연 이길수 있었는가고 우려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주석께서는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어 적들의 무력침공을 좌절시키고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가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할때 대한 명령을 내리시었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정의의 전장에 불러 일으킨 그이께서는 비범한 군사적지략으로 전쟁의 단계마다 독창적인 전법, 비상한 령군술을 내놓으시어 침략세력에 단호하고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가하도록 하시었다.

침략자들의 불의의 공격을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좌절시키는 놀라운 전법과 대담한 포위작전, 강도전과 비담기사냥군중운동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내놓으신 전법과 전술, 전법은 어느 병서에도, 그 어느 전쟁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새롭고 독창적인것이였다.

보르투갈 전 대통령 고메스는 조국해방전쟁에 대한 자기의 소감을 펴려하면서 당시 미국이 만든 작전계획은 미국령에 선 서방나라들의 참모장들, 군사전문가들인 수십명의 장성들이여

러차례 모여 작성한것이였다. 그런데 김일성장군은 그것을 단독으로 격파하시었다. 그분이시야말로 이 세상에 한분밖에 없는 천재적군사 전략가이시며 위대한 령장이시라는것을 알게 되었다고 존경과 흠모심을 터놓았다.

회세의 천출명장의 령도 밑에 코지 않은 나라 조선이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는 세계전쟁사의 보기 드문 군사적기적을 창조했던 것이였다.

미국의 함복도장이 찍힌 문건을 앞에 놓으신 위대한 주석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이 드디어 우리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우리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았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 놓았다고, 이 승리는 조선인민의 투쟁력사에 길이 빛날 것이며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할것이라고 군엄하게 말씀하시었다.

미국이 회기를 들게 한 세계적명장을 칭송하는 경린의 목소리가 지구의 방방곡곡에 메아리쳤다.

세상사람들은 김일성주석을 《만고의 영웅》, 《천하명장》, 《반제투쟁의

라수》로 끝없이 경모했다.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모든 조선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조선의 애국적행동의 상징으로 더욱 빛나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클라크대장군의 고백이였다.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아버지주석의 위대한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도로 더욱 빛나고있다.

백두의 기상과 슬기, 필승의 담력과 배짱을 한몸에 체현하신 회세의 선군명장 김정일장군님의 령도가 있어 주석께서 개척하신 반제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굳건히 수호되고 있다.

조국수호, 민족수호의 력사와 더불어 전승의 메아리는 더욱 높이 울려갈것이다.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

다함없는 존경, 절대적인 신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천재적군사전략가, 강철의 령장, 전설적명장으로 만민의 열화같은 존경과 신뢰를 받으시었다.

조선주재 전 소련의 《쁘라우다》 특파기자로서 《유엔군》의 항복서와도 같은 정전협정을 비준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모습을 활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의 친선 및 문화위조로 씨야협회 중앙리사회 위원장은 《김일성동지는 전생애에 걸쳐 모든 대결에서 모두 승리한 력사에 유일한 승리자이시었고 영원불멸할 수리의 화신이시었다.》고 신뢰감을 표시했다.

아일랜드의 한 정당 당수는 《조선인민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을 타승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한것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이룩된 경이적인 사변이였다. 그의

탁월한 군사전략사상과 전법, 세련된 령도가 조선인민의 전승을 가져왔다.》라고 칭송했다.

인디아로조조정센터 위원장은 《세계전쟁사에는 뛰어난 용맹과 기절로 무흔을 떨친 장군들도 많고 군사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수많은 대소작전들을 명활하게 지휘하여 상대를 총괄해 한 백전백승, 세계 《최강》을 떠들던 제국주의침략군대에 무자비한 참패를 준 강철의 령장은 오직 김일성주석뿐이시다.》라고 흠모심을 금치 못했다.

벨가리아의 한 인사는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영웅적투쟁을 벌려 3년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전적으로 걸출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전쟁에서의 미국의 패

배를 인정하는 항복서나 같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북조선군이 성공을 거둔것은 김일성장군의 유능한 지휘때문》이라고 실로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이 막을 내린 때로부터 4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1996년 10월 미국의 군부, 국무성, 정계, 학계의 인사들은 한 학술발표모임에서 《김일성주석을 현대정치사의 가장 출중한 위인으로 공인하는 중요한 리유의 하나도 20대의 젊은 나이에 유격적으로 일본의 100만 관동군을 타승하고 해방후에는 갖 조직된 3~4개 사단의 무력으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과 당당히 맞서싸운 보기 드문 군사대가였기때문이다.》라고 토로했다.

위대한 전승업적과 더불어 아버지주석의 거룩한 위인상은 승리의 상징으로 세계인민들의 마음속에 길이 빛나고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반공격 속도를 높여가던 인민군대앞에 서울해방은 시간문제였다. 지휘관들이 전선상황과 작전상황을 고쳐서 서울시내를 야밤으로 정하고있던 그무렵 아버지수령님께서 한동안 생각이 깊으시었다. 서울에는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있다. 그리고 정복군, 덕수궁, 창경원, 남대문을 비롯한 문화유적들도 적지 않다. 만일 밤중에 서울해방작전을 한다면 시민들의 생명재산과 문화유적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를 면할수 없게 된다.

전투작전보다 먼저 남녘동포들의 무릎을 마주 하시고

전선시찰의 길에서 남반부를 찾으신 수령님께서 어느날 한 가지에 들리시었다. 그이를 뵈은 것이 너무나 꿈만 같고 뜻밖의

안녕과 문화유산부터 생각하신 수령님께서 서울시에 대한 총공격을 밤에 하지 말고 날이 밝은 다음에 하도록 해야 한다고 작전시간을 친히 정해주시었다. 작전시 인민들의 생명재산에 조름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었다.

전쟁에서 피하는 불가피한것이냐 그이께서는 도시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시간을 늦추더라도 날이 샌 다음에 작전을 개시하도록 작전안을 제시하시었다.

서울해방작전시간은 전쟁개시 사흘만인 6월 28일 새벽 5시였다.

일이어서 물물바를 몰라하던 주인은 그에게 집안에 들어가시자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도 날도 더운

데 여기가 좋다고 하시며 토방우에 앉으시어 그의 생활상형편을 차조조 다 알아보시었다.

어느 사이에 그 집 사람문으로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들은 동네사람들이 줄줄이 모여 들었다.

떨 감까지 헤아리시여

서울시민들의 생활고중에서도 떨감을 장만하는것은 걱정중에 제일 큰 걱정이었다. 떨감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겨울 추위를 견디다 못해 농작이 벌써 방치된 지어는 방상까지 빠져서 아궁이에 넣기 어려웠다.

준엄한 전진속에서도 서울시민들의 가난한 정상을 헤아리신 수령님께서 어느날 그들이 하루 빨리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며 떨감문제같은것도 예견성있게 풀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떨

수령님께서 그들을 일별하시며 자신께서는 여러분과 똑같은 백성이라고 하시고는 오랜 시간 도지게 현실시정형도 알아보시고 부여받은 땅을 잘 다루고 농사를 잘 지을 방법도 논의하시며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피시었다.

나루의 수종과 채비지를 정해주고 필요할 자금과 로력문제를 풀어 주시였으며 델나무 소요일까지 손수 계산하시어 생산계획을 정해주시었다.

겨울도 아닌 삼복더위가 창창인 8월의 여름날에 벌써 떨감해결문제를 계획하시고 속전속결하도록 하시어 수령님의 숭고한 동포애와 은정 어린 조치에 의해 델나무생장은 단시일내에 끝나게 되었고 얼마후 한 강으로는 술한 나무토막들이 때죽 마냥 흘렀다.

가진지 언뜻 가려보기 어려울 정도로 메기들이 엉켜 돌아가는 광경은 볼만 했다.

그 모양을 이윽도록 지켜 보시며 장군님께서 《그야말로 물결만, 고기결만이다.》라고 하셨다.

물결만, 고기결만.

고기결만.

기쁨을 금치 못해서 그의 해학적인 말씀에 양어를 통한 높은 수익으로 덕을 보는 인민들의 생활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북 남 관 계 를 파 괴 한 장 본 인

지금 북남관계는 남조선 보수당국의 광란적인 반공화국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집권 첫날부터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면서 선언들에 의해 이룩된 성과들을 깎고 유리말살하였다.

그들이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해 열등당도않게 《추상적》이니, 《원론적》이니 하며 시비중상하고 《새 정권이 리행할 의무가 없다.》이니, 《부도난 약속어음》이니 하면서 그것을 백지화 해나섰던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보수패당은 청와대는 물론 통일부, 정보원 등 《정부》의 각 부, 처들에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을 모조리 숙청하였으므로 지어는 북남공동선언에 도장을 찍은 두 전직 《대통령》을 모해, 박해하여 끝끝내 죽음을 모아가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북남공동선언에 대해 얼마

나 적의를 가졌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여러차례 진행된 민간단체들의 공동선언발표 기념행사에 한반도 머리를 들이밀지 않은 사실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온 민족과 전세계가 진족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인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보수패당이 무참히 짓밟음으로써 북남관계는 에초부터 파국의 나락에 굴러떨어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북남대화는 물론 북남관계를 개선할 생각이 교류만큼도 없는 남조선보수당국은 《해포구선론》과 《비핵, 개방, 3 000》을 떠들어대며 공화국의 거둬되는 대화, 평화제안에 대해 외면, 부정하였다.

그들은 《북핵폐기가 남북관계의 대전제》, 《북이 핵을 포기하면 개방화기 전에는 어떤 대화나 협력도 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북남대화과 접촉을 모조리 차단시키고 협력사업에 빗장을 걸었다. 이로 말미암아 6.15이후 대화와 단합의 분위기속에서 잘 진행되어오

던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접촉과 교류도 중단되었다. 보수패당은 온 민족에게 통일 의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던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파탄시켰을뿐아니라 북남협력사업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질식시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런가 하면 도발적인 함성침몰사건과 영평도사건을 구실로 북을 악랄하게 끌고들면서 《더이상의 대화와 협력은 무의미하다.》고 내놓고 공언하였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미국의 반공화국제체소동에 맞장구를 치고 열을 올리거나 《북에 대한, 쌀 한 톨이라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악질적으로 놀아났으며 국제무대에까지 나가 그러한 추태를 부려 조소거리가 되었다. 한편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을 주장하는 통일운동단체들과 민간단체, 인사들을 파쇼악법인 《보안법》에 걸여 《친북》, 《리적》, 《간첩》으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남조선보수당국은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과 《금번사태》명상에 사로잡혀 반공화국대결소동과 북침전쟁책동에 극도로 미쳐날뛰었다.

보수패당이 모략적인 《북인권법》조작음모를 꾸미는 속에 리명박은 직접 《베를린장벽이 50년은 더 갈것이라고 했는데 10개월 후에 무너졌다.》니, 《벌지 않았다.》니, 《통일은 도적같이 올것》이라느니 하는 악의에 찬 망발들을 내뿔었다.

남조선호전광들속에서는 《북핵성체 타격》폭언과 《전쟁불사》말발이 마구 튀어나오 미국상군과 주구사이에 극히 위험천만한 전쟁모의들이 련이어 벌어졌다. 새로운 북침작전계획들이 작성이 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북침전쟁연습이 더욱 빈번해졌으며 최선전쟁장비들이 대대적으로 남조선군에 투입되었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미국과의 결탁에 전례없는 모략사건과 엄중한 군사적충돌사건을 도발하여 정세를

전국적으로 치달아오르게 하였다. 최근 남조선군부대거리들이 감행한 공화국의 체제와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표적사건, 구호사건과 같은 특대형도발행위들도 철저히 리명박의 반통일대결망발과 훈시에 따른것이다.

남조선에서 지금까지 《정권》이 여러번 바뀌었지만 련 보수 《정권》과 같은 추악한 친미사대, 동족대결미치광이의 무리는 없었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비참한 추방을 고향 날은 이제 멀지 않았다.

보수패당이 민족을 등지고 파쇼독재와 동족대결에 매달리던 매달릴수록 그것은 저들의 파멸을 앞당기는것으로 될뿐이다.

력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으며 남조선보수패당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정학준

최근 남조선보수당국은 《상호 진정성 있는 자세전환의 필요성》이니, 《대화, 협력》이니 하면서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너스레를 떨고있다. 그러나 사실상 남조선보수당국은 파국에 처한 오늘의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오히려 동족을 해치려는 홍심만이 가득차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이 기를 쓰고 체력하려 하는 《북인권법》이나 5월 23일 통일부가 립법에고하고 9월정기 《국회》에 제출하려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통일부가 립법에고했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철두철미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에 제방을 놓기 위한 독소들로 가득차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의 《승인》이 없이 제3국에서의 《대북지원》과 현지법인의 《대북투자》를 할수 없으며 《교역사업자등록제》를 실시하고 《정부》가 지정한 은행만을 통한 《대북송금방식》으로 전환하여 민간기업의 《대북교역사업》전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겠다는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개정안이 현실화된다면 남조선민간단체들의 대북교역과 인도적지원사업에 대한 당국의 개입과 규제가 보다 강화될것이며 그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된다.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협력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은 자못 크다. 이것은 지난 시기의 북남관계의 역사를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에서 북남협력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것도 다름아닌 민간기업이었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집권초기부터 광란적인 반공

화국대결책동으로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력, 교류를 모두 가로막아나섰다. 지난 해의 모략적인 《천안》호사건이후 남조선보수당국의 그 무슨 《5.24조치》로 말미암아 북남민간단체들사이에서 미미하게나마 이어져오던 교류와 협력마저도 현재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이다.

현 당국은 남조선민간단체들의 북과의 교류, 협력사업을 《법》에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북남관계를 대결의 구렁텅이로 더욱 깊숙이 밀어넣으려 하고있는것이다.

현실은 남조선보수당국이 협력하는 《대화와 협력의 길》이요 뉘오 하는것이 빈말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의 동족대결적인 《대북정책》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없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속김은자의 빈소리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민족을 등진 역적과 마주앉아야 시간만 람비 할뿐이다.

본사기자 최명제

통일은등에 대한 파쇼적 탄압을 반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13일 논평을 발표하여 단체에 대한 탄압국의 탄압책동을 규탄하였다.

론평은 12일 범민당국이 범민련 남측본부기판지 편집국장에 대한 재판봉을 벌려놓았지만 증거부족으로 또 다시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당국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체를 탄압해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론평은 비난하였다.

론평은 지금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당국의 탄압의 부당성을 까밝히고 항의투쟁을 벌리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리명박과 정보원, 검찰, 법원은 더이상 망신하지 않



부당한 탄압소동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러면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과 불법적인 기소를 중지, 철회해야 한다고 론평은 강조하였다.

▲ 남조선의 민주로총 인천본부 《보안법》 폐지국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통일운동단체자들에 대한 파쇼광들의 구속책동에 항의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정보원이 이른바 《일진회사건》이라는 감투를 씌워 탄압한 통일운동단체자들중 4명에 대한 구속명장을 추가로 청구하고 그들의 변호권을 침해하였다고 규탄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해 북과 접촉, 교류한것은 죄로

될수 없으며 이것은 더욱 장려되어야 할 일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정보원이 인권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 남조선잡지 《민족 21》 편집주간 안영민이 15일 한 인터넷통신문에 공안당국의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는 글에서 지난 6일 파쇼공안세력이 인천 경복대학교 교수였던 아버지와 자기의 집에 달려들어 탐지기까지 동원하며 수색소동을 벌였다고 폭로하였다.

당국이 총련관계자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며 조직원들을 인입하였다는 혐의를 씌워 이러한 폭거를 가하였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선임 《정권》시기 합법적으로 북을 다녀오고 언정장에서 총련관계자들을 만났던것이 어떻게 죄로 될수 있는가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세운다고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남북교류사업에 나섰던 단체, 인사들모두가 범죄자로 된다는것인가고 반문하였다.

본사기자

진 짜 속 심 은 무 엇 인 가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13일에 금강산지구 남측 부동산정리를 위한 북남관계자들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접촉에서 남측당국관계자들은 부동산정리와 관련한 북측의 립장에 대해 《합의파기》니 뭐니 하면서 생억의를 썼는가 하면 북측과 남측의 민간기업가들이 따로 만나 협의하는 데도 끼여들어 제방을 놓음으로써 결국 협상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룰수 없게 하였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지도 벌써 3년이 넘었다.

그동안의 관광중단으로 인해 공화국이 입은 손실도 적지 않지만 남조선의 기업들과 인민들이 입은 피해도 천문학적수자에 달한다. 금강산관광의 주요기업인 현대아산은 작년말까지 3 900억원의 매출손실을 입고 고되었으며 관광사에서 투자한 170여개의 중소기업들

과 500여개의 령형업체들이 파산되거나 휴업상태에 있다고 한다. 남조선강원도의 경우에는 관광중단으로 입은 피해액이 지금까지 거의 1 000억원에 이르고 특히 고성지역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에 닿았다.

금강산관광길이 가로막힘으로써 민족의 명산을 보고 싶어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번에 진행된 북남실무접촉은 전적으로 남조선기업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이 금강산국제관광사업에 다시 참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공화국의 이향하는 조치에 의해 이루어진것이다.

그런데 남측당국관계자들이 실무접촉에서 취한 태도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지난달 3일 금강산지구의 부동산조사사업에대민 민간기업들만 들여보내고 팔짱을 끼고있어 강건너 불보듯 하였던 남조선당국이 이번 접촉에서는 《민간단체방문》을 《불허》하고 부득부득

머리를 들이민것자체에 불순한 목적이 있다. 금강산 국제관광투구가 지정된것으로 하여 지금 세계적으로 금강산관광에 참가하려는 기업들과 나라들이 늘어나고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여기에 불안을 느끼고 저들이 직접 나서 다시한번 금강산관광사업에 제동을 걸어보려는 데 그들의 진짜 속심이 있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또다시 공화국의 동포애적인 성의를 무시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남조선당국은 북남대결을 위해서는 민족의 리익도 서슴없이 저버

림소영

리는 민족반역집단으로서의 정체체를 다시한번 드러내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남조선당국은 지금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금강산지구를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망발도 서슴지 않고있다.

금강산국제관광은 누구도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남측기업들의 재산을 보호할수 있는 리성적인 선택을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본사기자

금강산관광재개를 요구

남조선 강원도의 최문순지사는 지난달 30일 어느 한 토론회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금강산관광을 우선 재개할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남조선 민주당의 정동영최고위원은 지난 8일 당 최고

위원회의에서 《우리의 자랑인 금강산관광을 즉각 재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당의 김진표원내대표도 《5. 24대북조치를 중단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남 조선 당 국 의 대 결 정 책 을 비 난

◎ 최근 남조선의 《한나라당》이 보고서를 발표하여 현 《정부》가 《대북강경책》을 수정하고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의도연주소 비전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대북강경책》을 지나치게 고집하다 남북관계와 국민여론을 필요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남북간 긴장해소와 신뢰구축을 위해 정치적, 군사적 남북대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나섰다.

◎ 재미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이 11일 리명

박역적패당의 반통일대결정책을 비난하는 편집인의 글을 실었다.

같은 미국, 일본, 유럽의 해외동포들이 성명, 담화들을 통해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반공화국도발행위와 남북의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파쇼적폭거를 일삼고있는 리명박역적패당의 대결책동을 강력히 규탄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은 계백이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민중적인 책동에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역적패당이 실패한 《대북정책》을 걸어치우고 전쟁도발책동, 통일인사관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글은 밝혔다.

피리패당의 동족대결정책은 력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글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비 법 적 으 로 꾸 며 진 파 쏘 악 법

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처음으로 조작된것은 1948년 12월이다.

당시 리승만은 망국적인 《단독정부》조작봉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드세찬 투쟁으로 통치기반이 밀부리게 흔들리게 되자 예국국민민들의 투쟁진출을 탄압하기 위한 법적인 도구를 만들어내는데 매달렸다.

리승만은 《내부에 침습하는 공산세력을 막아야 한다.》는 구실로 1948년 11월 20일 이른바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라는것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야당세력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할수 없었다.

바빠맞은 리승만은 남조선전역에 백색레로의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놓고 악법조작을 반대해나선 《국회》의원들을 《용공분자》, 《간첩》으로 몰아 구속한 가운데 12월 1일 이를 날치

기로 공포시행하였다.

이렇게 세상에 빠져져나온 《보안법》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에 높아가고 반역집단의 통치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파쇼독재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한 통치책들의 도구로 부단히 개악되어왔다.

1961년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탈취한 《유신》독재자는 1961년 7월 3일에 《반공법》을 새로 조작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보안법》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파쇼악법조작책동이였다.

광주를 피바다에 잠기고 《정권》의 자리에 틀고있는 전두환군부세력은 1980년 12월 《보안법》에 《반공법》의 독소조항들을 모두 합치고 체계화하여 이 악법을 반공파쇼화를 위한 최대최악의 악법으로 개악하였다.

1990년초에 《민자당》패거리들도 민사당의 경악을 자아내는 악법개악소동을 벌렸다.

당시 제154회 《림시국회》에서 이 패거리들은 저들의 반역적인 기도가 어린 《보안법개정안》의 통과가 야당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저지에 부딪히자 저들

끼리 회의장부도로 뛰쳐나가 무선마이크로 단 35초만 통과시켰다.

리명박보수집권세력도 지난해 《보안법》개정을 노린 《법률안》이라는것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의 대상은 《보안법》 7조(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죄)로서 여기에 《법원이 리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해당 단체에 대한 해산》을 선포할수 있게 내용을 더 보충하였다.

그리고 그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들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리적단체》에서 탈퇴하지 않은 사람에게 리행강제금을 징수할수 있도록 했으며 해산명령을 받은 단체의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도록 하였다.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보안법》은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인민들의 피에 배치되게 한중도 못되는 반역자, 대결광신자들이 저들의 매국반역적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남강도조로 꾸며내려 고악해은 악법중의 악법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당국의 모략사건조작행위에 항의

남조선의 민주로총 인천본부, 《보안법》 폐지국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정보원앞에서 파쇼당국의 정치적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통일운동에 관여하였던 10여명의 로동자, 시민들에게 《일진회》라는 간첩단을 조직하여 활동했다는 혐의를 씌우고 《보안법》에 걸여 탄압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당국의 이번 폭거는 민중의 투쟁을 억누르기 위한 모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얼마전 금강산지구 남측 부동산정리를 위한 북남관계자들의 협상이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기이한것은 지난 시기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문제라면 한사코 빗장을 지르고 강건너 불보듯 하던 남조선당국이 《민간단체방문》을 《불허》하면서까지 여기에 머리를 들이민것이다. 게다가 그 무슨 《당국간 합의파기》를 떠들며 《주인》홍배를 곧잘 썼으니 서쪽하늘에서 흐든다는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문제는 남측당국의 태도가 민간기업들을 위한다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명줄마저 끊어버리려는 속셈이라는 데 있다.

지난 시기 북남화해협력사업의 《육동자》로, 6.15의 상징으로 불리워온 금강산관광사업은 북남사이의 협력사업을 달가와 하지 않았고 그에 사사건건 제동만을 걸어온 현 남조선보수당국의 행6.15책동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서러맞은 떡잎》이 되고말았다.

《련일 우물건 자살소식은 너무나 현실적이 너무나 익숙하게 전해지고있다.》 이것은 인민들속에서 만연되고있는 자살현상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교수가 쓴 글의 대목이다.

지난달에도 남조선 광주에서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2명의 녀학생이 투신자살한것을 비롯하여 지난 3년간 광주시에서만도 30여명의 학생들이 자살하였다고 한다.

광주뿐이 아니다. 경제파동으로 인한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고 자식들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아버지가 자살하고 처사는 물가와 집세에 치여 어머니가 자살하고있으며 돈이 없는 배움의 꿈을 버려야 하는 실업과 분노를 안고 자식들이 자살하고있다.

자살자들은 사회의 밑바닥을 헤매이는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서도 나타나고있으며 이렇게 비명에 간 사람들이 지난해에는 1만 4 000여명으로 2007년에 비해 2.4배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하루에 40명, 두시간에 3명이 자살하는것으로서 현재 자살률은 10만명당 31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있다.

자살병은 남조선군에도 만연되어 올해 군내부에서 9명이 자살하였다.

《천안》호사건, 연평도사건이후 더욱더 로골화되는 반공화국전쟁소동과 혹독한 훈련, 파로운 경계근무, 비인간적이고 폭압적인 분위기에 대한 공포와 환멸이 낳은 남조선군사병들의 극단한 선택이다.

군당국이 얼마나 동족대결을 고취하고 전쟁연습에 내몰았으면 극도로 쌓인 정신적긴장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민간리객기도 거러보지 못하고 총질을 하는 회비극이 연출되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남조선 《정권》은 인민들을

자살로 숨져가는 사회

자살으로 떠밀고있는것도 모자라 진정한 삶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보안법》과 같은 악법으로 대답하고 있다.

얼마전에도 정보원은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조합활동가들과 《미친 등록금의 나라》를 출판한대학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활동가들을 《보안법》에 걸여 그들의 집들과 사무실들을 압수수색하고 검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남조선 《정권》은 인민들을 자살로 떠밀고있는것도 모자라 진정한 삶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보안법》과 같은 악법으로 대답하고 있다.

얼마전에도 정보원은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조합활동가들과 《미친 등록금의 나라》를 출판한대학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활동가들을 《보안법》에 걸여 그들의 집들과 사무실들을 압수수색하고 검거하였다.

그 원인이 《순수 개인의 부족, 무능, 라태, 심리적장애》 등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이라는 점》이며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것이 아닌 사회적라살》이라는것이 현재 남조선의 류형적인 자살에 대한 평가이다.

자살병을 만연시키고있는 현 《정권》에 의해 남조선사회는 지금 죽음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서철수

정세를 어디까지 몰아가려는가

얼마전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는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였다고 발표하였다.

해의주둔 미군 3 000여명을 포함한 미군 3만여명과 남조선군 5만 6 000여명이 참가하여 11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 연습을 두고 호전광들은 합동무력의 종합훈련과 지휘관들의 《의사결정능력》을 높여 남조선미국 《동맹》의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떠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년례적》이니, 《방어훈련》이니 뉘니 하며 전쟁 연습에 평화의 허물을 씌우려 하고 있다.

긴장한 조선반도의 정세를 더욱더 격화시키는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 아닐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오는 조선반도 정세는 예측할수 없을 정도로 첨예하다.

《천안》호사건과 연평도사건을

구실로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대결 소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해온 내외 호전광들은 그것도 부족하여 최근에는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엄중히 중상모독하는 표적사건과 같은 특대형도발행위들을 거침없이 감행하고 있다. 날로 포화되는 호전광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는 물리적충돌과 전쟁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는 호전광들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조선반도정세를 위협하는 온갖 대결소동을 당장 걸어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내외 호전광들이 저들이 임버릇처럼 위태는 《대화》와 《평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시대의 요구와 민심의 흐름에 맞게 전쟁을 추구하는 일체 군사적대결소동들을 당장 중지하는것이 마땅하다.

내외 호전광들의 복침전쟁열은 그

들이 떠드는 《대화》와 《평화》가 오직 대결과 전쟁을몰아 가리우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얼마전에도 남조선호전광들은 대기의 운동과 변화상태에 상관없이 공화국의 핵시설, 미사일기지 등에 은밀히 침투할수 있는 특수부대용수송기를 만들겠다고 공표하여 공표하였다.

지금까지 미군장비에 의존해온 특수작전용수송기를 자체로 제작하여 리용하겠다는것이다. 이로부터 그들은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확보》의 간판을 걸고 공군이 보유하고있는 《C-130》수송기 4대를 미군특수작전용수송기와 유사한 형태로 개량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그 누구의 이지도 않는 《위협》을 구실로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무력을 강화하려는 호전광들의 불순한 기도의 산물이다.

그뿐 아니라 남조선호전광들은 모략적인 《북의 사이버위협》설까지

지 내돌리면서 국방정보본부 산하 부대로 있던 사이버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승격시키고 그 인원수도 500여명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적대결소동과 선제공격준비책동이 전례없이 감행되는 속에 또다시 벌어지게 될 합동군사연습이 첨예한 조선반도정세에 어떤 파국적효과를 가져오겠는가는 불보듯 뻔하다.

《울지 프리덤 가디언》연습은 조성된 조선반도의 정세로 놓고볼 때 불은 불에 키질하는 격으로서 쌍방간의 물리적충돌과 전쟁만을 촉진시킬뿐이다.

공화국은 이미 천명한대로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호전광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준엄한 과멸을 안길것이다. 호전광들은 저들의 대결소동이 가져올 파멸적후과를 명심하고 무분별한 복침전쟁연습소동을 당장 취소하여야 한다.

김철호

역적패당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발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발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리명박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정세가 극도에 달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5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975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최근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와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참다운 생활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이른바 《북인민백서 2011》이라는것을 만들어 내돌리고있다고 하면서 《북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고 하는 《북인민백서 2011》이라는것은 온갖 허위와 기만, 날조와 중상으로 엮여지고 흑백을 전도한 나쁜 반공화국모략문서이라고 규탄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신성한 체제와 존엄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정적도발로서 우리 인민의 치욕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고 하면서 서 보도는 남조선에 전대미문의 인간생지옥, 인권의 무덤으로 만들어놓은 파쇼패당이 감히 그 누구의 《인권실

태》요 뉘요 하고 이러쿵저러쿵 제치는것이아말로 역겨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보도는 역적패당의 파쇼적인 반인민적악정으로 민생이 도란에 빠지고 정의와 진리,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있으며 의로운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살벌한 탄압과 박해가 갈수록 심해지고있는 사실, 청와대를 비롯한 괴뢰집권층의 사기협잡과 부정부패가 극도로 만연되어 정치와 온 사회가 썩어대러져고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 배움의 권리, 일할 권리마저 다 빼앗기고 죽음의 낭떠러지에 내몰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는 사실 등을 들어 남조선 사회의 현실을 폭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이 계속 하였다.

이로 하여 국제적으로도 《인권후진국》,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낙인찍혀 저주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대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은 《더는 못살겠다》, 《리명박정권을 타도하자》고 웨치며 역적패당을 반대하는 투쟁에 분연히 떨쳐나서고있다. 괴뢰패당은 모략적인 인권소동으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호러시키고 남조선 각계에 서 날로 높아가는 북남관계개선요구를 말살해하려고 발악하고있지만 그것은 천하에 어리석고 가스로운것이다.

괴뢰패당이 반공화국대결모략책동에 매달리던 매달릴수록 외세에 빌붙어 민족을 등지고 반역을 일삼는 저들의 비렬하고 추악한 본색만을 더욱 드러내보일뿐이다.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우리의 신성하고 존엄높은 체제를 건드리는 리명박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철대로 용서치 않고 고도로 징벌할것이다.

역적패당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적개심과 보복성전의지를 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얼마전 남조선의 《국회》의장 박희태가 그 무슨 《제헌절기념축사》라는데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니, 《자유와 평등》이니를 운운하면서 공화국을 걸고 횡설수설하였다.

동족에 대한 체질적인 적대감을 가진자의 괴뢰적한 궤변이 아닐수 없다.

《주인》, 《우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것은 공화국에서 인민들이 즐겨서는 말이며 현실을 반영한 표현이다.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파쇼와 독재가 란무하고 금권이 살판치는 남조선과 같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울안에서만 맴돌아온 박희태와 같은자들의 소견으로는 인민

대중중심의 공화국을 바로 볼수 없고 리해조차 할수 없을것이다.

물건대 《실용정권》이 득을 쓰는 오늘의 남조선사회에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에 대해 논할수 있는가.

지금 더욱 강화되고있는 한진중공업로동자들의 파업과 내각감독총조별투쟁에 대한 야만적인 공안탄압이 보여주듯이 생존의 권리와 배움의권리마저 짓밟히는 곳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란 짝조차 찾아볼수 없다.

삶의 권리를 주장하고 민

중독일이란 말 한마디만 해도 《법》이라는것이 족쇄를 채우고 친재벌정책으로 빈부차이가 하늘땅사이로 되었으니 자유와 평등은 더 말할나위도 없다.

한마디 더 한다면 《부자천국, 서민지옥》의 남조선

고있다.

바다물을 통채로 마셔보아야 잔맛을 알수 있는것이 아니다.

로인들의 처지만 놓고보아도 남조선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니, 《자유와 평등》이니 하는따위의 횡설수

설은 썩은 도랑의 물거품 러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2010년 통계에 의하더라도 자식들에게서 쫓겨난 로인수는 103만여명, 그들에게서 학대받은 로인수는 70만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사회의 버림을 받은 로인들은 죽음을 택할수밖에 없다.

구소수 권력자들은 《치외법권》을 행사하며 《로조법》, 《비정규직법》과 같은 악법조작에만 급급하고 절대다수의 인민들은 《법》을 휘두르는자들을 중용하고있으니 이런 사회의 앞날은 뻔하다.

박희태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가스플레도 《인간의 존엄》이니, 《자유와 평등》이니 하면서 그 누구를 시비하고있으니 그야말로 동족대결에 미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정신병자라 해야 할것이다.

경고하건대 박희태는 제 코도 못 씻는 주제에 남을 걸고드는 악습을 버려야 한다.

성중삼

대결에 미친자의 괴뢰치한 궤변

단편 역겨운 추태

얼마전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 김관진은 주변 나라를 행각하면서 특대형의 모략극인 《천안》호사건과 연평도사건을 걸고 그 누구의 《도발》이니, 《책임있는 조치》니 뉘니 하면서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정책에 대한 지지로 구걸하였다. 그런가하면 남조선미국 《동맹관계》를 운운하며 하수인으로서 상전의 세계제대야망을 적국 비호두둔하였다.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틀에 나가서도 샌다고 김관진이 해외에까지 나가 동족대결소동을 벌리고 미국의 침략정책의 돌격대나 신것은 반공화국대결광자, 친미사대 매국노로서의 역겨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김관진으로 말하면 동족에 대한 극도의 중오감과 친미사대적의식이 골수에까지 팍찬자이다. 이런자기에 김관진은 지난해의 연평도포격사건이후 저들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할 대신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그 누구에 대한 《응징》을 부르짖으며 전쟁광기를 부리었다. 지어는 《선조지, 후보고》를 떠들며 이 땅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었다. 최근에는 《안보교육》의 미명하에 남조선전지역에서 대결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는가 하면 나이던 학생들에게까지 총을 쥐여주어 전쟁에 내몰려 하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김관진과 같은 전쟁광신자가 있어 이 땅에서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하면서 즉시적인 파면을 요구하고있다.

배운것이란 오직 전쟁밖에 모르는 군사장개이다보니 김관진은 외교를 한담시고 해외에 나가 하는것이 대결소동을 벌리면서 민족의 얼굴에 흙물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다. 이런자가 있는 한 거레에게 차레질것은 화박에 없다.

짧은 혀로 긴 목을 건사 못한다는 말이 있다. 동족대결소동의 앞장에서 날뛰는 김관진은 입부리를 잘못 놀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것이다.

김응철

미군기지들앞에서 반미투쟁 전개

13일 남조선의 미군기지들 앞에서 각계층의 반미시위투쟁이 일제히 전개되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비위원회,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정당 성원들이 투쟁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고압제매물행위가 드러난지 2개월이 되어오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진상규명도 사과도 없다고 규탄하였다.

미군의 범죄행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현 남조선보수패당이 집권하면서 《따름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회》니, 《서민들을 위한 정치》니, 《일자리창출》이니 뉘니 하며 근로대중을 위해 무슨 큰일이나 할듯이 요란스러운 광고를 내걸었다는것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그것이 한갓 기만에 불과하였다는것은 시간이 갈수록 여실히 증명되고있다.

한진중공업사태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2월 남조선의 한진중공업은 리용이 적다는 미명하에 수백명의 로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시켰다. 돈이 모든것을 좌우하는 남조선에서 실업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하루이틀이 될 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된 로동자들

《친서민정책》의 현 실태

은 날과 달을 이어 업주층에 정리해고조치를 철회할것을 요구하며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를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회사의 로동자들은 물론 고용불안과 정리해고 등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에 불만을 품은 부산지역의 각계층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합세하였다.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표현하고 실현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벌리는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자기들의 존엄과 민주주의적권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벌린 평화시위투쟁은 결코 죄로, 탄압의 대상이 될수 없다. 만약 남조선당국자들이 《친서민정책》에 궂물만 한 관심이라도 있다면 로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어 죽음에 내모는 업주층에 응당 죄를 묻어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처음부터 그 무슨 《불법폭력집회경계대

을》을 떠들면서 방대한 경찰력을 동원하여 집회참가자들에게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행위를 감행하였다.

지난 4일과 10일에 경찰당국은 수많은 병력을 내몰아 한진중공업 로동자들에게 대한 정리해고조치를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집회참가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들을 련행해갔다. 그뿐 아니라 업주층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항의하여 민주노동총 부산본부성원들과 로동자들이 한진중공업연도조선소부근에서 초불집회를 열자 경찰차들은 물대포를 쏘아대고 지어 최루탄까지 발사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야만적인 폭압과정에 집회참가자 60여명이 련행되고 수십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 탄압소동이 얼마나 광란적이었던지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최

아았다는 《친재벌정책》에 구성스럽게 매달리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들의 반인민적본성은 철대로 감출수 없다.

현실은 남조선을 민주와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 파쇼가 살판치는 암흑천지로 만든 《실용정권》이아말로 인민을 등진 반역 《정권》이며 선행한 군부독재 《정권》보다 더 악랄한 파쇼살인 《정권》임을 푼득히 보여주고있다.

한경수

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마음과 힘을 합쳐 이룩해가는 민족의 성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겨레는 《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기자!》, 《민중정권의 새날을 마중가자!》고 토로하며 노력하고있어 한말중, 그 것도 도적처럼 온갖의 꿈에도 생각지 않습니다.

바늘도적이 소도적된다고 못하는것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10년》으로 우리 민족기리를 없애버려려 하고 북과 남이 애써 마련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력하고 부정합니다.

《비핵, 개방, 3 000》으로 동족의 존엄을 강도질하려 하고 《비상통치계획-후흥》이니, 《작전계획 5029》니 하는 따위로 그 누구의 체제를, 《북인권법》조작과 같은 망풍으로 공화국민심을 흔쳐보려고 날뛰었다.

한때 군부무를 못한것을 보충하느라 그러는지 공화국을 침략하려는 악한 각종 군사연습과 무장도발을 그 철쇄없이 벌려놓습니다.

최근에는 연평도포격사건을 두고 《천추의 한》이니, 《울화통이 터진



당국의 반인민적로동정책을 규탄하는 남조선로동자들

《리명박 (정부) 들어서는 거둬지는 일본》 독도강탈야욕을 제대로 조지해본적 없다.》, 《결국 리명박 (정부) 의 (조용한 대일외교) 야말로 일본정부의 광적일 정도로 심각한 독도강탈야욕을 부추기고있는셈이다.》 (남조선의 민주노동당 대변인이 독도문제에 대한 리명박 (정부) 의 대일굴종태도를 비난)

《한나라당》 대표의 폭언을 비난

남조선의 민주노동당 대변인이 15일 《한나라당》 대표의 폭언을 비난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얼마전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가 한 녀성기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는데 대해 언급하고 《한나라당》이 녀성모독정당이라는 오명도 모자라 이제는 폭언정당이라는 별

명까지 덧붙였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어른이 고조되자 흥준표가 해당 언론사에 사과하는 놀음을 벌렸지만 이것은 결코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론평은 오만한 《한나라당》이 설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버릇처럼 하는 말의 하나가 《나도 한때...》라고 합니다.

《나도 한때 로점상인이여서...》, 《나 자신이 한때 철거민이여서...》, 《나도 학생대 민주화운동에 참가해서...》 뉘이런 식으로 각계층의 남조선인민들을 만나 말할 때마다 늘 《나도 한때...》라는 수식사를 덧붙여 외운다고 합니다.

한때 못해본 일이 없다는 뜻이 《나도 한때...》를 외우는 집권자이지만 권력을 잡을 때부터 또 그 이후부터 그가 해온 일이란 한때 못해본것만 골라하는데 사기절도행위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적은 국가와 사회재산, 개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는자를 말합니다.

도적에는 소매치기, 줍도적, 날도적이 있습니다. 도적이 더한 방법 즉 폭행, 협박 등으로 남의 물품을 빼앗는자는 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사모 쓴 도적을 가장 큰 도적으로 일러왔습니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바

로 현대판 사모 쓴 도적으로 사람들의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 선거때 내걸었던 현란한 《공약》들을 하나하나 백지화하고있으니 이것은 가장 큰 사기협잡으로 인민들을 기만하고 《선거》표를 도적질하여 《정권》을 강탈한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가로챈 다음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을 도적질하였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수입으로 시작하여 《858경제대란》으로 굴러떨어진 《747공약》, 《대내공화국》을 빚어놓은 《친서민공약》, 인명을 앗아가고 흥수피해 등 막대한 고통을 들이치고 《대운하공약》 등 집권자의 《공약》들은 인민들의 생존과 생활을 파괴하고 죽이는 독약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사기협잡을 하느라고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퍼넣었으니 이것은 인민들의 형세를 강탈한것이지요.

한때 로점상인을 해보았다면서요 경찰을 내몰아 60살이 넘는 로점상 할머니를 거리에서 숨지게 하고

《나도 한때...》

공정한 언론을 요구하면 《악한 언론사》와 《미디어법》 등으로 막아치고 집회나 시위를 벌리면 검찰, 경찰을 내몰아 저지시키고 로동권을 요구하면 물대포와 최루탄을 란사합니다.

거리에서 시위도 못해, 신문으로 비판도 못해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고 분노해서 인터넷으로라도 울분을 쏟아내느라 그만저도 차단해버리니 오죽하면 남조선인민들이 《욕실특공대》를 조직했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도적정치속에서 진

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마음과 힘을 합쳐 이룩해가는 민족의 성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겨레는 《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기자!》, 《민중정권의 새날을 마중가자!》고 토로하며 노력하고있어 한말중, 그 것도 도적처럼 온갖의 꿈에도 생각지 않습니다.

바늘도적이 소도적된다고 못하는것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10년》으로 우리 민족기리를 없애버려려 하고 북과 남이 애써 마련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력하고 부정합니다.

《비핵, 개방, 3 000》으로 동족의 존엄을 강도질하려 하고 《비상통치계획-후흥》이니, 《작전계획 5029》니 하는 따위로 그 누구의 체제를, 《북인권법》조작과 같은 망풍으로 공화국민심을 흔쳐보려고 날뛰었다.

한때 군부무를 못한것을 보충하느라 그러는지 공화국을 침략하려는 악한 각종 군사연습과 무장도발을 그 철쇄없이 벌려놓습니다.

최근에는 연평도포격사건을 두고 《천추의 한》이니, 《울화통이 터진

본사기자 김경혁

